

제 105 호 교수님의 권위 1

교수님께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고든에 의하면 권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근원에서 비롯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식과 정보에서 비롯하는 권위며, 예로써 의사의 권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이유는 의사의 손이 약손이 아니고 인체와 병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의술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변호사, 약사, 계리사, 엔지니어, 자동차 정비사 등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 권위"(knowledge authority)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또 하나는 벌과 상을 줄 수 있는 권력에서 비롯하는 권위입니다. 회사원이 상관의 뒤에서 "취할도 모른다." 또는 "치사하기 짝이 없다."하며 욕을 할 망정 그 앞에서는 꺾소리 못하고 오히려 잘 보이려는 이유는 상관이 줄 수 있는 상(승진)이나 벌(퇴직)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권력권위"(power authority)에는 강제성이 들어있습니다. 회사원은 상사가 지시한 사항을 싫든 좋든 억지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번째는 직책에서 오는 권위입니다. 위원회 멤버들이 위원장의 지시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위원장이 대단한 인물이거나 무서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단지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임무를 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책 권위(job authority)는 서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관행으로 존중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책 권위는 무의식적으로 이행되기 쉽습니다.

권위는 하나 이상의 근원에서 비롯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복잡한 교차로에서 교통순경의 지시대로 차를 움직이는 이유는 첫째로 운전사는 교통순경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염려도 한 몫하기 때문이겠지요. 즉, 교통순경에게 직책권위와 약간의 권력권위가 있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의 권위를 두루 다 겸비한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 것이 바로 교수(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문지식이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학생이 두려워하는 F 성적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부모의 지위와 맞먹는 스승이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수님은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완벽한 독재자로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의 종류가 많습니다. 존경받는 philosopher king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진절머리 치는 폭군이 될 것인가.... 이것은 부여받은 권위를 왜,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교수의 핵심 특성 7가지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정답이 있는 듯합니다 (새시대 교수법, 56쪽). 다음 호에는 교수님께서 이미 지니고 계신 이 세 가지의 권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